

웹툰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민간신앙 활용 양상과 그 의미*

이경화**

■ 국문초록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젤리빈 작가가 민간신앙을 활용한 두 번째 작품이다. 기존의 웹툰에서는 민간신앙 중 무속 신화와 무속신앙을 주요 활용 대상으로 삼았다면,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신화가 아닌 민간신앙 속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신화를 위시로한 민간신앙을 활용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는 바, 「어둠이 걷힌 자리엔」과 같은 종합적 활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민간신앙의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민간신앙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주인공 두점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를 위무하는 무당의 역할과 유사하다. 신과 귀신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사람에게 신과 귀신의 말을 전달하는 두점의 역할은 매개자로서의 무당의 성격과 동일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두점의 면모 또한 뒷전거리에서 소외당한 존재를 위무하는 무당의 역할과 유사하다.

둘째, 본 작품은 신과 영물을 통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작품 속 신과 영물은 민간신앙 속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사고의 전환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영물과 작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셋째, 문제제기 주체로서 원귀를 형상화했다. 이는 원혼 설화 속 원귀의 문제 고발 주체로서의 성격을 활용한 것이다.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가정폭력에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로 / 이메일: leekia@nate.com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원귀가 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다. 본 작품은 원귀의 공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원혼을 문제 제기의 주체로 형상화했다.

3장에서는 민간신앙의 활용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의 구성 요소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편 민간신앙 속 존재들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 영물 그리고 신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공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의 요소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대와 공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을 그려내고 있다.

주제어: 웹툰, 민간신앙, 원귀, 영물, 신.

1. 들어가며

웹툰은 웹(Web)과 만화(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는 만화를 지칭한다. 웹툰은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연재되기 시작하여 만화의 주요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았다.¹⁾ 2000년대에는 드라마, 로맨스, 일상을 그린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2010년대부터는 액션, 스릴러,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그리고 인기를 얻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공연 또한 제작되는 등 웹툰의 파급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²⁾

웹툰에서 우리나라의 신화 세계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신과 함께」가 있다. 「신과 함께」는 수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고, 이후 이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연극이 공연되고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신

1) 15~39세의 경우 2020년 1년간 디지털로 유통되는 만화만 이용한 비율이 무려 70프로에 달한다. (☞ 글로벌리서치, 「2020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2.18.

2)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 「이태원 클라쓰」, 「쌍갑포차」, 「경이로운 소문」, 「여신강림」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모두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과 함께」를 통해 한국의 「신」을 접하고 한국 신화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저승과 이승의 중간 공간인 이승을 배경으로 한 「쌍갑포차」, 바리테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바리공주」 등 한국의 신화 세계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 서사무가 속 신과 서사의 활용에서 나아가 신화의 세계관을 활용하는 등 웹툰에서의 신화의 활용 양상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신과 함께」, 「쌍갑포차」, 「바리공주」 모두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바, 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신화의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신과 함께」는 제주도의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³⁾ 「쌍갑포차」와 「바리공주」 또한 무속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무속신화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주목이 필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다음에서 2019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연재되었으며, 「묘진전」⁵⁾을 연재했던 젤리빈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다. 「묘진전」은 「묘진본풀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신화의 원형적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 평가된 바 있다.⁶⁾

전작이 신화 세계를 배경으로 했던 것과 달리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배경으로 한다. 일제강점기는 서구의 문물의 유입으로 문학, 교육,

3)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명현, 「〈신과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 『구비문학연구』 40, 구비문학회, 2015; 박향아, 「『신과 함께: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정제호, 「서사무가의 콘텐츠 활용 유형과 스토리텔링 양상」, 『일본학연구』 52,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최수웅,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2017.

4) 유형동, 「웹툰 〈쌍갑포차〉에 재현된 무속신화적 세계인식」,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5) 「묘진전」은 무속 신화의 서사 구조와 한국적 신 관념, 신화적 사유를 현대의 독자에 맞게 재구성하여 신 「묘진」의 서사를 그렸다. 강명주·이찬욱,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성—웹툰 〈묘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 중앙어문학회, 2018.

6)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302~303면.

복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생활상이 변화하고 미신 타파 운동 등으로 민간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던 시기이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 속 다양한 존재들을 통해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샘물의 신, 사람의 형상을 한 돌의 신 등 신화가 전승되지 않는 작은 신과 뱀, 족제비와 같은 영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신화가 전승되지 않는 민간신앙 속 존재들을 주요 인물로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신과 함께」와 같은 신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맥락에 놓이면서도 또 다른 지점을 갖는다. 기존의 웹툰에서는 민간신앙 중 무속 신화와 무속신앙을 주요 활용 대상으로 삼았다면,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신화를 활용하지 않고 그 외의 민간신앙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신앙은 한국의 신화 그 중에서도 무속 신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정신앙, 무속신앙, 마을신앙은 연구자에 의해 분류된 것일 뿐⁷⁾, 일반 민중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민간신앙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민간신앙의 종합적 활용은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으나 신화를 위시로 민간신앙을 활용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활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민간신앙의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민간신앙 활용 양상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두검이 일하는 오월중개사무소에 사람, 신, 영물 등 여러 의뢰인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검은 남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듣고 보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두검을 찾아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두검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준다.

7) 이러한 분류는 『한국민속신앙사전』이 무속신앙, 가정신앙, 무속신앙으로 나뉘어 발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 「쌍갑포차」에서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그승이라는 별도의 세계를 상정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세계는 이승과 저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승을 배경으로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승 곳곳에는 신과 영물이 함께 살고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저승으로 이동하나 원한이 있으면 원귀가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 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세계관은 젤리빈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일반 민중의 생활 속에 신앙이 살아 숨쉬던, 다시 말해 민간신앙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기의 민중들의 세계관을 공유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위무하는 무당 역할을 하는 주인공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주인공 두점을 중심으로 한 옴니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두점은 남들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이 능력을 활용하여 물건을 감별하기도 하고,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여기서의 손님은 사람과 더불어 신, 귀신, 영물을 포함한다. 이 작품에서는 보통 사람은 신,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보거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초자연적 존재들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두점을 찾아온다. 두점은 경성의 ‘오월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손님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의뢰 사항을 말한다. 두점은 별도의 의례를 행하거나 초월적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반 중개사무소 직원처럼 사무실에 있다. 다만 그가 초자연적 존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들이 두점을 찾아오는 것이다.

두점은 ‘소통’의 측면에서 무당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사람과 신을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것은 두점이 일하는 곳이 ‘중개사무소’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두점은 산자와 죽은자, 신을 매개한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존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전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자와 신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귀신과 신에게 전하는 즉 두 세계를 중개하는 무당의 역할과 같다. 무당이 의례를 통해 신과 인간을 연결하며 의뢰 사항을 해결하는 반

면 두검은 의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사제(司祭)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두검은 무당의 성격 중 매개자로서의 면모를 차용하여 창작된 인물이다.

두검이 이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죽은 혼이 원혼이 되었고, 그 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자 한 비구니가 우물을 만들고 그 속에 원혼을 잡아먹는 뱀을 봉인했다. 비구니는 뱀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물을 ‘부정한 것을 없애는 곳’으로만 기억하며 마을에 일어난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가정폭력, 외부인에 대한 차별 등 폭력에 의한 죽음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를 ‘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위장하여 시체와 관련 물건을 우물에 넣음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두검은 부정 너머의 진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두검은 ‘손쉬운 해결책’을 없애려는 존재로 낙인찍혀 그 또한 우물에 던져졌다. 그런데 두검이 우물에 떨어지며 뱀의 봉인이 풀렸고, 뱀은 고마움의 뜻으로 두검에게 남들은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두검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남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듣는 일을 하는 것이다.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계기에서 알 수 있듯 두검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폭력을 감지하는 눈을 갖고 있으며 폭력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낸다. 두검은 약자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며, 그러한 성격에 따라 두검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사연은 사회적 약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정폭력,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한 차별, 외지인에 대한 경계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돕는 두검의 면모 또한 무당과 그 성격을 공유한다. 무속에서 뒷전 거리는 곳의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굿거리로 초대되지 못한 잡귀, 잡신을 풀어먹이는 의례이다. 여기서의 잡귀, 잡신은 장애인, 여성, 소외된 서민과 같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로, 뒷전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을 풀어 보낸다.⁸⁾ 두검이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원을 풀어주는 모습은 무당이 굿거리의 마지막에 소외된 잡귀 잡신을 초청하여 위무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두검은 의례를 행하거나 종교계에 종사하는 인물은 아니다. 골동품, 미술품 등

8) 황루시, 「무속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약자의 존재성」, 『구비문화연구』 51, 한국구비문화학회, 2018.

을 취급하는 오월중개사무소의 직원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매개자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무하는 것은 무당과 유사하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무당의 매개자로서의 성격을 추출하여 두겹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만들었다.

2)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신과 영물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에 서구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유입되면서 현실 세계는 물리적, 과학적 합리성에 지배되는 영역이란 인식으로 변화했다, 그에 따라 점복, 무속, 금기와 같은 민간신앙은 미신으로 치부되었고⁹⁾,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와는 대별되어 타자화되었다.¹⁰⁾ 또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면서 자연관 또한 변화했다. 중세에 자연은 미지의 영역이자 종교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은 점차 인간에 의해 관찰 분류되어 신성성을 잃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¹¹⁾ 일제강점기는 이러한 변화를 겪던 시기로 초자연과 자연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던 중세적 사고와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 대표되는 근대적 사고가 공존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일제강점기의 ‘사고의 전환기’로서의 특징에 주목하여, 사고의 변화 속에서 신, 영물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이 어떻게 적응하였는가를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중세적, 근대적 사고의 우열을 가리지 않으며 민간신앙을

9)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유입,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 근대화를 향한 한국사회의 내재적 욕구에 의해 미신탈파운동이 이루어졌고 민간신앙은 점차 미신으로 인식되었다. 미신탈파운동은 지역의 일부 사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신탈파운동을 통해 민간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자리잡았다.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9, 한국무속학회, 2005.

10) 굿은 조선시대부터 음사(淫祀)로 취급되었으나 이는 유교적 예(禮)의 관념을 따른 것이다. 무속의 우주 관념이 예에 기반한 유교의 우주 관념에 대비되므로, 굿을 음사로 취급하고 금지하였다. 이때 유교는 자연과 초자연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굿을 바라보는 근대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김동규,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한국문화연구』 23, 한국문화연구원, 2012.

11) 대표적으로 호랑이의 경우 산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충기의 보급으로 호랑이 사냥이 쉬워지면서 호랑이는 한낱 짐승으로 그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노상호, 「조선후기 동물에 대한 지식과 기록」, 『한국학연구』 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6~27면.

미신으로 치부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적 사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다만 민간신앙의 세계를 인정하고, 중세적 사고 속에서의 세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 세계에 속해있던 신, 영물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이 근대적 사고로의 전환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들의 사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어떤 초자연적 존재 중 어떤 존재가 그려지는지를 대해 살펴보자. 우선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신에 대해 살펴보자. 민간 신앙에서는 곳곳에 신이 좌정해 있다고 믿는다. 산, 땅, 나무, 바다, 강, 샘, 바위 등 자연의 곳곳이 곧 신이자 신의 좌정처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서는 사람의 곁에 존재하는 이러한 신들이 두검을 찾아온다. 개별적인 신화가 전승되는 위력이 강한 신이 아니라, 깊은 산 속의 샘, 큰 귀를 가진 사람의 모양을 한 바위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신이 등장한다. 또 작품에서 이들이 신이 된 내력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신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줄 뿐이다.

이것은 작가의 전작 「묘진전」과도 대별된다. 「묘진전」은 무속 신화의 통과례를 겪고 신으로 좌정하는 서사구조를 재구성하여 묘진의 좌정기를 그린 작품이다.¹²⁾ 이때 배경은 작가가 한국 신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작한 또 다른 신화적 세계이다. 반면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인간 세계 즉 '이승'을 배경으로 한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신 그리고 영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본 작품은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고의 전환기를 맞이한 초자연적 존재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야기이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 등장하는 신 중 '귀'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귀'는 한 섬에 있는 바위의 신이다. 귀는 큰 귀를 가진 사람의 모양이지만 입 모양은 없는 바위다. 사람들은 귀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그를 찾아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섬을 떠났고 귀를 찾아오는 사람의 수도 줄었다. 찾는 사람이 없자 귀는 신성성을 잃고 바위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마침 바위가 갈라지며 입이 생긴 것이다. 말을 할 수 있

12) 강명주·이찬욱,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성—웹툰 〈묘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 중앙어문학회, 2018.

게 된 귀는 두점을 찾아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던 사람 중 하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귀는 “사라질 신들은 사라지고 남은 신들은 모습이 변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신들이 태어날 것이구요.”¹³⁾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둠이 걷힌 자리에」의 신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신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신의 역할이 변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의 존속에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면 신성을 잃고 자연물 그 자체로 변화하는 모습은 귀 외의 다른 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⁴⁾ 이는 ‘과거에 그 많던 신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한 작가의 대답으로 볼 수 있으며,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설정은 한국 민간신앙에서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¹⁵⁾

신이 변화한다는 관념은 「귀빈」에 나타난다. 마을의 문제이인 대철이 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몰라”하고 말했다. 사람들의 반복되는 바람을 듣고 마을에 온 존재가 대철을 죽이고 허수아비로 바꾸었다. 두점은 이에 대해 그 존재가 한때는 신이었지만 이제는 쇠락한 귀가 되어버린 무엇일 수도 있겠다며 “모두가 반복해서 말하고, 빌었던 원망이 괴물이 된 옛 신에게 닿았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며 살았던 옛 신은 그것이 뒤틀린 방식일지언정 이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주고 싶어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¹⁶⁾하고 생각한다.

13) 「일곱번째 기담 삼십년 슬래잡기」 7, 2019.11.22.,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76430>.

14) 토지신은 인간이 일으킨 변화 때문에 피곤하여 자꾸 잠이 든다고 말한다. 「어쩌면 러브스토리」 1, 2019.1.18.,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61561>. 석장승은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며 신성이 사라졌다. 「어쩌면 러브스토리」 7, 2019.3.1.,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62431>.

15) 가정신앙에서는 신을 모시는 방법 중에 ‘건궁’이 있다. 이는 신체 없이 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신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신체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없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의 믿음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건궁 성주의 예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491면.

16) 「넷째 기담 귀빈 완」, 2019.6.7.,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67230>.

변화한 신은 다소 기괴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준다. 신은 문제아인 대철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양분 삼아 자란 식물의 열매로 대철을 대신할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설정은 한국의 민간신앙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민간신앙에서의 신격의 변화는 신의 습합 혹은 신격의 확장으로 나타나기에 여기서 신의 변화는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시체를 양분으로 삼아 자란 열매로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 또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 작품의 장르가 미스터리, 판타지, 기담이라고 소개되어있는 것처럼 이는 작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적 설정이다. 또 기괴한 설정을 통해 기담과 미스터리로서의 분위기를 강조했다.

영물 또한 변화를 맞이한 존재로 그려진다. 「담비동자」의 의뢰인 담비동자는 어설프게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담비로 추운 날 굶어 죽을 뻔한 자신을 거두어준 보살들에게 보은하고자 두검을 찾아온다. 담비는 두검의 도움을 받아 보살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보살들은 그런 담비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영물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두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던 뱀이자 두검의 곁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인물인 치조다. 작은 동물인 담비와 다르게 치조는 아주 힘이 강한 영물이다. 치조는 자신의 영역이었던 산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산의 영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곤 자연이 신비가 아닌 이해의 영역에 위치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치조는 두검의 곁으로 돌아와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로 한다.

담비가 인간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최근에 묵은 큰 짐승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며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 같은 짐승들이나 영물들, 오래된 신들에겐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기가 분명합니다요.”¹⁷⁾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본 작품에서 영물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변화할 때 신비로운 존재였던 영물의 두 가지 선택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큰 짐승들처럼 사라지거나 담비동자처럼 인간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 등장하는 신과 영물 모두 신화나 설화가 전승되지 않

17) 「여섯번째 기담 담비동자 完」, 2019.10.4.,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73815>.

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민간신앙 속 작은 신과 영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다. 영물(靈物)은 신령스러운 물건이나 짐승을 뜻한다.¹⁸⁾ 뱀, 두꺼비와 같은 동물이 집에서 살며 그 집을 보살펴준다는 업 신앙도 있지만, 자연 곳곳에 신령스러운 동물이 있다는 믿음도 존재한다. 또 등장인물인 ‘귀와 같이 독특하게 생긴 자연물에 대한 신앙이나, 샘물, 나무와 같은 주변의 자연물에 신이 있다는 믿음도 존재한다. 본 작품은 이러한 믿음을 활용하여 귀, 담비동자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영물과 작은 신은 민간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영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사냥과 낚시를 함에 있어서도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영물에 대한 이해는 완벽히 통제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 중 「길찾기」에서 산신인 호랑이와 관련된 금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권력자가 이 금기를 악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한다.

또 작은 신에 대한 믿음에의 주목은 일상 속 기도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소한 욕망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삼십년 술래잡기」의 귀에게 털어놓던 사람들의 비밀, 「어떤 사랑은」 속 자신의 연인을 살려달라는 여자 아이의 기도, 「귀빈」의 신의 귀에 들어간 대철이 없어지길 바라던 사람들의 섬뜩한 바람이 그것이다. 민간신앙에는 사람들의 솔직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기원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¹⁹⁾ 이것이 꼭 것과 같은 특별한 의례를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 아침 조왕에게 정화수를 떠 올리며 자식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위, 외출하고 돌아오며 마을신에게 인사를 올려 무탈을 기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신들이 살아 숨 쉬었으며 그들과의 사소한 관계, 또 그들에게 전하는 작은 바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속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초자연과 자연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던 중세적 사고에

18) 「영물」,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21, <https://stdict.korean.go.kr>.

19) 홍태환, 「풀림과 맺힘의 서울 무속」,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148면.

서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 대표되는 근대적 사고로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마주한 영물과 신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신과 영물은 민간신앙 속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사고의 전환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영물, 작은 신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전했다. 본 작품은 영물과 작은 신을 등장시킴으로써 웹툰의 민간신앙 활용의 지평을 확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여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그려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3) 사회 문제 제기를 담당하는 원귀

두점을 찾아오는 존재 중 원귀가 있다. 이들은 두점에게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원귀가 된 까닭은 ‘결혼을 못해서’와 같은 이유가 아니다. 그들은 죽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폭력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원귀가 되었다. 「어쩌면 러브스토리」의 오고오는 태어날 때부터 뒷목에 뼈가 솟아올라 있었다. 집안의 어른들은 그 뼈가 역적이 될 징표라며 고오를 억압했지만, 고오의 남편 조기만큼은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다. 한편 조기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웃음 발작이 있어 집에 갇혀 살았다. 비정상성 때문에 가족에게 외면받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조기는 갑작스럽게 터진 웃음 발작 때문에 고관대작의 아들 김성지에게 맞아 죽었고, 고관대작의 청탁으로 김성지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고오는 김성지를 찾아가 죽이고 조기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발을 헛디뎈 굴러떨어져 죽었다. 고오는 운이 나뻐서였지만 자신의 죽음이 천벌 때문이라 여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승으로 가지 않고 원귀가 되었다.

오고오와 조기 모두 그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웃음 발작, 독특한 모양의 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았다. 가족들은 이들의 신체적 특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이를 역적이 될 징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과 연결 지어 그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했다. 반면 사람을 때리고 죽인 고관대작의 아들 김성지는 징벌을 받기는커녕 호의호식했다. 「어쩌면 러브스토리」는

오고오와 조기의 이야기를 통해 신체적 특징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또 권력으로 죄를 은폐하는 행태와 그 폭력성을 이야기했다.

「길찾기」에서도 권력자에 의한 폭력을 다루고 있다. 깊은 산에 있는 마을 개갈촌에는 사냥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붉은 눈썹을 가진 남자만이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금기가 있었다. 만약 금기를 어기면 산신이 노해 사냥꾼이 다친다고 믿었다. 과거에는 금기를 근거로 붉은 눈썹의 남자에게만 사냥의 기술이 전해졌고 이들은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총기가 보급되면서 사냥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붉은 눈썹을 가진 어정은 여자였지만 남몰래 총으로 사냥을 했다. 이 사실을 안 촌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냥꾼을 죽이고 이를 산신인 호랑이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위장하고는 그 죽음이 어정이 금기를 어겼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어정을 때려 죽였다. 어정은 억울함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원귀가 되었다.

개갈촌의 촌장에게 금기란 산신이 금지한 종교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다. 「어쩌면 리브스토리」에서는 권력자에 의한 범죄의 은폐를 보여줬다면 「길찾기」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기를 이용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권력층의 욕망과 잔혹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길찾기」는 원귀가 된 어정의 말을 통해 촌장의 폭력에 대한 분노와 촌장이 처벌받지 않은 것의 부당함을 고발한다.

고오와 어정은 과거의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들이 겪은 폭력은 현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위의 이야기들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권력자에 의한 부정과 횡포가 그것이다. 두점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느냐 묻자 치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승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²⁰⁾고 한다. 이 작품은 원귀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을 떠올리게 하며 치조의 이 말을 통해 이승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한다.

「SOS puppy」에서는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종종

20) 「마지막화」, 2020.10.23.,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97498>.

오월중개사무소에 찾아오던 아이에게 일어날 가정폭력을 예고하기 위해 원귀들이 두점을 찾아온다. 그리고 원귀는 한 명씩 자신들이 죽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폭력으로 인해 죽은 것이었다. 원귀들은 “이것은 과거이면서도 현재, 현재이면서도 미래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외면하는 자들의 방관과 추악한 자들의 단합으로 반복되는 폭력”²¹⁾이라고 말한다. 앞의 이야기들이 비교적 간접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현재의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하는 사람들 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징벌보다는 원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한다. 원귀는 직접 자신이 당한 폭력을 이야기한다. 과거부터 지금의 현대까지 가정폭력으로 죽은 원귀들이 등장해 자신이 겪은 폭력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심 촉구와 폭력의 근절을 이야기한다. 한편 오고오, 어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겪은 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권력자들의 횡포를 고발한다. 본 작품은 범인을 징벌하여 작품 내에서 사건을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고발의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개별적 사건의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문제 인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속 원귀 서사 속 고발은 원혼 설화가 가진 사회 문제 제기의 역할과 유사하다. 원혼 설화의 원혼의 죽음은 여성의 경우는 성폭력이, 남성형의 경우 사회적 갈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²²⁾ 또 원혼은 대부분 하층민이며, 상위 지배층일 경우 그에 따른 특권을 박탈당한 존재이다.²³⁾ 이들은 사회적 주변인으로 주변과의 소통이 단절된 존재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썩지 않는 시체’와 같은 비정상적인 죽음의 표상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원혼 설화는 사자(死者)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를 생자(生者)가 듣고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²⁴⁾ 이때 설화 속 원

21) 「SOS puppy 4」, 2020.2.7.,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81453>.

22)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43면.

23) 위의 논문, 52면.

혼의 사연은 사회제도 및 규범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원혼 설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 제도와 규범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의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²⁵⁾

원혼 설화 속 원혼과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원귀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죽음은 사회적 규범,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원귀는 직접 자신이 입은 폭력과 그의 부당함에 대해 말한다. 즉,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원혼 설화 속 원귀의 사회적 문제 고발 주체로서의 성격을 활용하여 웹툰 속에서 원귀를 형상화하고 있다.

「전설의 고향」을 필두로 원귀는 콘텐츠에서 공포물의 소재로서 주목받았다. 현대의 괴담에서 원귀는 타인을 통한 간접 해원보다는 자신이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그들을 공포에 빠트리는 직접 해원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왜 죽었는지, 왜 모습을 드러내는지가 간혹 드러나지만, 인과관계는 대부분 생략되고 원귀는 공포와 불안을 전달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²⁶⁾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서 원귀의 활용에서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 공포의 대상에서 나아가 원귀 설화를 모티브로 한 추리물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²⁷⁾, 최근에는 「쌍갑포차」와 같은 원귀의 사연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웹툰이 연재되기도 했다. 원귀는 콘텐츠에서 공포의 대상에서 나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원귀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 위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제기의 주체로서 그려졌다. 「미생」, 「신과 함께」, 「며느라기」와 같이 웹툰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원귀가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4) 원혼설화는 생자의 관점에서 사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기실은 사자의 의지를 생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구조를 갖는다.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39면.

25) 강진옥, 앞의 논문, 2002, 58~60면.

26) 송소라,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의 구성적 특징과 전통귀신담의 콘텐츠화의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3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7) 윤정안, 「영상 매체에 수용된 원귀 이야기의 양상과 변화」,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학회, 2019, 65~67면.

3. 「어둠이 걷힌 자리엔」 속 민간신앙 활용의 의미: 문제 제기를 넘어 ‘연대, 공생’으로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두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보니 서사를 관통하는 단일한 주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주인공인 두점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가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며 그를 찾아오는 손님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다양한 폭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어쩌면 러브스토리」는 장애인인, 「SOS puppy」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길 찾기」는 권력자의 횡포에 희생당한 여성이 등장한다. 이들은 원귀로 나타나 자신이 겪은 폭력의 부당함을 고발한다. 또 「우는정원」은 외국인의 소외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국적,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위치 지어진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때 이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점의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에 공감함으로써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그려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작품은 이들의 고통이 과거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주지하다시피 국적, 성별, 장애,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원귀의 입을 통해 “이것은 과거이면서도 현재, 현재이면서도 미래 이것은 지금까지 있어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외면하는 자들의 방관과 추악한 자들의 단합으로 반복되는 폭력”²⁸⁾라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처벌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로한다. 우선 두점은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연대한다. 또 폭력 속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기도 하며, 피해자의 바람대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 공론화하기도 한다. 신과 영물 또한 피해자와 연대한다. 다만 두점과는 조금 다르다. 신과 영물은 인간과는 다른 사고관을 갖고 있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에 이들

28) 「SOS puppy 4」, 2020.2.7.,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81453>.

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이해한 후에야 그를 도와준다.²⁹⁾ 본 작품에 등장하는 영물과 신은 큰 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움으로써 피해자와 연대한다.

웹툰의 마지막에 영화의 상영회 자리를 갖는데, 「어쩌면 러브스토리」의 오고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길찾기」의 어정이 이 영화를 보자 저승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원귀인 오고오와 어정은 함께 저승으로 떠나는데 이는 피해자간의 연대를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원귀는 한으로 인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이들이 저승으로 향하는 것은 피해자가 위로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본 작품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영물이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또 영물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영물의 적응기를 통해 인간과 영물이라는 다른 존재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선택하는 과정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의 문화와 사고가 다를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작품은 영물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의 구성 요소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편 민간신앙 속 존재들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본 작품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사람, 영물 그리고 신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통해 공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사회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연대와 공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 또한 그려내고 있다.

젤리빈 작가가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서 전작보다 다양하게 민간신앙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화 상상 여행』³⁰⁾ 집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9) 「어떤 사랑은」의 샘물의 신은 자신의 연인을 살려달라는 여자 아이의 기도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들어주지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한 후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영물인 치조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 이 책은 신동훈 교수가 신화의 줄거리 소개와 해설을 쓰고 젤리빈 작가가 신화에 대한 일러스트를 그린 한국 신화 입문서이다.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신화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였다.³¹⁾ 여기서 젤리빈 작가는 신의 인물화와 더불어 짧은 만화를 실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만화는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화한 현대 사회를 지켜보는 당금애기의 이야기, 사람이 찾아오자 숲을 떠나는 산천신의 모습 등 변화를 맞이한 신의 모습 또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에서 젤리빈이 작가가 던지고 있는 질문인 신들은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수많은 신은 왜 사라졌는지와 같은 것은 「어둠이 걷힌 자리엔」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다. 젤리빈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일은 “「그러나」와 「만약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책 구성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신동훈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받쳐주신 덕분에 저는 마음껏 기존의 구전신화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³²⁾ 이를 통해 젤리빈 작가가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연구자와의 협업이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영향 속에서 「어둠이 걷힌 자리엔」이 창작되었다.

한국의 민간신앙을 처음 접할 경우 『살아있는 우리 신화』³³⁾와 같은 입문서,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³⁴⁾,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³⁵⁾과 같은 사전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문서의 경우 신화를 위주로 하며, 사전류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토마나 있어 민간신앙의 속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에 『우리 신화 상상 여행』의 집필처럼 연구자와 창작자의 만남³⁶⁾은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 신동훈·젤리빈, 『우리 신화 상상 여행』, 도서출판 나라말, 2017.

31) 위의 책, 4면.

32) 위의 책, 6면.

33)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2004.

34)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09.

35)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2011.

36) 한국구비문화회는 2019년 하계학술대회 기획주제 〈구비문화와 현실문화 만들기〉 하에서 구비문학을 활용하는 창작자가 발표하고 연구자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창작자와 연구자의 만남의 장을 개척한 바 있다.

4. 나가며

젤리빈 작가는 전작 「묘진전」을 통해 신화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한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젤리빈 작가가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그린 두 번째 작품으로 이 작품은 민간신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을 중심으로 웹툰의 민간신앙의 활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어둠이 걷힌 자리엔」의 민간신앙 활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주인공 두겸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를 위무하는 무당의 역할과 유사하다. 두겸은 남들은 보고 들을 수 없는 신, 귀신과 소통할 수 있다. 신과 귀신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사람에게 신과 귀신의 말을 전달하는 두겸의 역할은 매개자로서의 무당의 성격과 동일하다. 신, 귀신, 영물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두겸을 찾아오는데 이들의 사연은 사회적 약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두겸의 면모 또한 뒷전거리에서 소외당한 존재를 위무하는 무당의 성격과 유사하다.

둘째, 본 작품은 신과 영물을 통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초자연과 자연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던 중세적 사고에서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 대표되는 근대적 사고로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마주한 영물과 신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신과 영물은 민간신앙 속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사고의 전환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영물과 작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전했다.

셋째, 문제제기 주체로서 원귀를 형상화했다. 이는 원혼 설화 속 원귀의 문제 고발 주체로서의 성격을 활용한 것이다.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가정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원귀가 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한다. 본 작품은 이들의 공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혼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원혼을 문제 제기의 주

체로 형상화했다.

3장에서는 민간신앙의 활용 양상을 바탕으로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의 구성 요소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편 민간신앙 속 존재들을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 사람, 영물 그리고 신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통해 공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엔」은 민간신앙의 요소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동시에 연대와 공생을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을 그려내고 있다. 📖

■ 참고문헌

- 젤리빈, 「어둠이 걷힌 자리엔」, 다음 웹툰, 2019.1.11.~2020.10.30.,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darkness>.
- 강명주·이찬욱, 「무속 신화의 현대적 수용과 재구—웹툰 〈묘진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3, 중앙어문학회, 2018, 61~85면.
-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45면.
- _____,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5~65면.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 _____,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 _____,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 김동규,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한국문화연구』 23, 한국문화연구원, 2012, 283~322면.
- 김진철, 「웹툰의 제주신화 수용 양상」,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2015, 37~62면.
- 노상호, 「조선후기 동물에 대한 지식과 기록」, 『한국학연구』 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5~48면.
- 박향아, 「『신과 함께: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송소라,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의 구성적 특징과 전통귀신담의 콘텐츠화의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39, 한국고전문화교육학회, 2018, 137~180면.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2004.
- _____,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 신동훈·젤리빈, 『우리 신화 상상 여행』, 도서출판 나라말, 2017.
- 유형동, 「웹툰 〈쌍갑포차〉에 재현된 무속신화적 세계인식」, 『문화와 융합』 41, 한국

- 문화융합학회, 2019, 31~54면.
- 윤정안, 「영상 매체에 수용된 원귀 이야기의 양상과 변화」, 『우리문화연구』 63, 우리 문화회, 2019, 53~74면.
- 이명현, 「〈신과함께〉 신화편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 『구비문화연구』 40, 구비문화회, 2015, 167~192면.
-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9, 한국무속학회, 2005, 151~180면.
- 정재호, 「서사무가의 콘텐츠 활용 유형과 스토리텔링 양상」, 『일본학연구』 52,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113~136면.
- (주) 글로벌리서치, 「2020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12.18.
- 최기숙, 「Daum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본 고전 기반 웹툰 콘텐츠의 다층적 대화 양상」, 『대중서사연구』 25, 대중서사학회, 2019, 303~345면.
- 최수웅,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41, 동아인문학회, 2017, 71~99면.
- 홍태한, 「풀림과 맺힘의 서울 무속」,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139~163면.
- 황루시, 「현대사회와 무속의 가치관」, 『소통과 인문학』 3,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05, 137~151면.
-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7~62면.

■ Abstract

The use of folk religion in the webtoon 「Where the darkness has cleared」 and its meaning*

Lee Kyung-hwa**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aspect of the folk religion of 「어둠이 걷힌 자리엔」 (Where the darkness has cleared),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is work in the use of the folk religion in webtoons.

「Where the darkness has cleared」 features 두검 (Doogyeom), who plays the same role as a shaman. Through Doogyeom, the intermediary, human beings, gods, ghosts, and mystical creatures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It also depicts the the spirits and gods adapt the changes of the world. This webtoon embodies the gods in close proximity to the archetype of the mythic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captures the spirit and surrounding small gods into the realm of webtoons. This webtoon also pointed out social problems through the vindictive ghost. This webtoon also rediscovered the character of vindictive ghost as a subject of social problems.

「Where the darkness has cleared」 shows the components of folk religion, while criticizing social issues through the being of folk religion. It also shows sympathy and solidarity to victim. It also talks about symbiosis through the way people, spirits and gods understand each other and seek ways to live together. As such, 「Where the darkness has cleared」 shows not only socia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leekia@nate.com

criticism, but also a hopeful view of change in society by talking about solidarity and symbiosis.

Keywords: webtoon, folk religion, ghost, mystical creature, god.

논문접수일 2021.03.30. / 심사기간 2021.04.01.~2021.04.26. / 게재확정일 2021.04.27.